

다음세대 지도자를 준비시키자.

- 김현실 목사 / 2003. 8. 5 -

(온누리교회 교육목사, 두란노 교육문화연구원 팀장)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 하였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차세대 지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통용되는 원리이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다음 리더를 준비시키는, 어느 교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 빌더입니다. 리더 빌더로서의 부모는 다음 리더인 자녀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상 2장 3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남긴 말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용장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했을 때 그 아들의 연약한 부분이 마음에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리더빌더로서 솔로몬에게 자신과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한 도망자의 생활은 고통의 나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며 기름 부음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기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통일 시킬 수 있는 장군으로서의 리더십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을 낱알이 파락하여 그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의 절정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하면서 시작되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이 아들 솔로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도자를 키우는 리더빌더로서의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줄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정말 대신 아파 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할 때 시험장 밖에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함께 해 줄 수 없고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제는 꿈땅의 어린이들이 몽골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파송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아프지 말고 이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몽골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돌아와보니 부모들을 훈련하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모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훈련.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은 선교 훈련동안 동일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리더 빌더로서 다음세대의 지도자인 자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 세상과의 타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리더 빌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